

【연구논문】

## 미국 지성사에서 존 듀이의 위치

이 형 대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Asia 부교수)

### I. 머리말

미국 지성사에서 존 듀이는 19세기 후반 찰스 C. 퍼스와 윌리엄 제임스가 수립한 프래그머티즘 사상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상가로 손꼽히고 있다. 퍼스와 제임스는 물론 듀이는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상과 제도에 반항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항적 태도는 미국 지적 전통의 전체에 대한 도전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 지적 전통의 중요한 본질인 전체와 부분들의 균형과 조화를 견지하며 통합과 진보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미국정신”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정신”에 대한 언급은 그 언급 자체가 최근 미국학계에서는 거부되는 실정이다. 그것은 지성사가인 데이빗 홀린저가 언급하는 바처럼, “미국정신”이나 “미국성격”과 같은 주제의 연구는 “전체론적(holistic)”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1960년대 이래로 이 접근방법은 더 이상 역사분석의 카테고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오늘날 미국학계에서 미국사를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연구태도는 결국 “문화적 지배”의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지성사자들은 프래그머티즘과 같은 주제를 거대한 “미국

---

1) David A. Hollinger, “The Problem of Pragmatism in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7 (June 1980), 89.

사상의 성장” 속에 한 부분으로 보았다.<sup>2)</sup>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대표성” 이론은 그 “사상”과 “정신”이 누구의 사상과 누구의 정신을 대표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더 이상 전통적인 지성사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듀이 사상에 대한 이해는 미국 지성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을 비롯하여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최근 연구와 논의가 소위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맡겨졌을 때 오히려 그 주제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축소되고 왜곡되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에만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의 문제점은 최근 제임스 T. 클로펜버그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지나치게 프래그머티즘의 급진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는 자세다.<sup>3)</sup> 예를 들어 대표적인 미국의 포스트모던 철학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로티는 듀이를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와 함께 “20세기의 세 명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들” 중 하나로 보면서 그를 미국철학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본다.<sup>4)</sup> 다시 말해 로티는 듀이를 모든 철학적인 기반과 본질은 물론 통합과 합의, 그리고 객관성을 거부하는 급진적 철학의 선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듀이 사상을 미국 지성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최근 급진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가를 알게 될 것이다.

듀이의 철학은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극단은 아니었다. 듀이 철학이 내포하는 의미들은 풍부하고 복잡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철학은 종합을 추구하였다. 정확하게 그의 사상을 고찰하기

2) Merle Curti, *The Growth of American Thought* (New York: Harper and Row, 3rd ed., 1964).

3) James T. Kloppenberg, “Pragmatism: An Old Name for Some New Ways of Thinking?”,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3 (June 1996).

4) Richard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xviii.

위해 우리는 듀이라는 거대한 지성의 강을 한쪽 강둑에서 또 다른 강둑으로 건너야 한다. 우리가 저 거대한 강의 한쪽 둑에 단지 서 그의 사상을 이해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의 사상이 하나의 전체로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듀이 사상의 진정한 실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모던 세계에 대한 반응

듀이의 사상이 형성된 시대는 전통적인 농업 사회가 거대한 산업 및 도시 사회로 바뀌고 있었던 전환의 시기였다. 이 전환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산업주의는 “모던 세계”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sup>5)</sup> 사무엘 P. 헤이즈가 잘 분석했던 바처럼, 이 모던 세계의 “산업주의”는 사회의 모든 부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과 관계를 변형시키고 있었다.<sup>6)</sup>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모던 세계는 복잡한 실체였다. 산업화, 도시화, 전국화, 기계화, 자본주의화 그리고 과거와는 아주 다른 배경을 지닌 엄청난 이민의 유입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미국인들이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추구해 왔던 가치들은 물론 거부해 왔던 모든 것들도 함께 내재해 있었다. 다시 말해 이 모던세계는 미국민들에게 엄청난 진보와 발전 그리고 혜택과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온갖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왔던 사회문제 중 하나는 사회의 극심한 분열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북부와 남부는 여전히 분열 상태에 있었고 일반계층과 저 빅토리아 계급이라 하

5) “모던세계”라는 용어는 “현대세계”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최근 학문적 관심사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쓴다.

6) Samuel P. Hays, *The Response to Industrialism, 1885-191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는 상층부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에 유입되었던 대량이민은 그러한 분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당시 헨리 조지와 같은 지식인들은 철저하게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데 전념하였다.<sup>7)</sup> 빈부의 격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불평등의 문제는 지식인이 다뤄야 할 당연한 과제였다. 다시 말해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의 혜택을 비판하고 사회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과 같은 일은 당연한 지식인들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이러한 문제에만 국한되었다면 지식인들의 역할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모던세계는 이 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지식인들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심원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모던 세계는 미국 사회의 권위와 전통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로버트 H. 웹이 잘 지적하는 바처럼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중심이 없는 사회였다. 그 사회는 국가 권위의 중심을 상실하였다.”<sup>8)</sup> 사상가로서 듀이가 한 평생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 권위의 새로운 기반을 세우는 일이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는 미국사의 시작과 함께 미국민들이 염원하였던 진보의 약속을 실현시켰지만 그 대가는 그들 모두가 소중한 여기던 전통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이었던 개인주의의 윤리와 도덕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사상 속에 남아 있었던 제퍼슨주의적 이념, 즉 자영농이 주축이 되는 이상적인 농업사회에 대한 이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확실히 산업화로 인한 대기업과 대도시의 등장은 전통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폴 F. 볼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상의 전환”을 가져왔다.<sup>9)</sup>

7)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1879;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1).

8) Robert H. Wiebe, *The Search For Order: 1877-1920* (New York: Hill and Wang, 1967), 12.

9) Paul F. Boller, Jr., *American Thought in Transition: The Impact of Evolutionary*

듀이가 살았던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사회구조의 변화는 느렸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빠르고 철저하게 변하고 있었다. 실제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세계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고립적이고 정체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상호관계 속에 있었다. 당시 지성계 내에서 다윈주의가 유행하였던 사실은 이 새로운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다윈주의가 내포하고 있던 자연의 끊임 없는 변화와 유기적 관계에 대한 암시는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 체계를 새로운 세계에 맞게 변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저 다윈주의가 암시하고 있는 바는 사회의 모든 권위의 위기였다. 그것은 비록 이 시대가 엄청난 물질적 진보를 이룩하고 그 중심에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미국민의 생활은 종교적이었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독교 창조설이 비판받기 시작했고, 사회의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보일 때 인간과 사회는 분열되고 있었다.

듀이는 이러한 분열과 불안의 시대에 인간의 통합 및 자아의 전체성을 깊게 인식하였던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은 완성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었다. 듀이는 통합이란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이 하나의 공통목적에 향하여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력이 행위와 작용 속에 있는 것이지 정적인 대상 혹은 대상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통합은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만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sup>10)</sup>

인간존재의 통합에 대한 듀이의 사상은 예술, 교육, 사회, 국가, 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그의 이해에 적용되었다. 역사와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그가 변화보다는 덜 전통을 강조했지만 듀이의 사상은 포스트모던 사상과 이론과는 달리 시간의 연속성 개념에 기반을 두었

*Naturalism, 1865-1900*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1).

10) John Dewey, “The Unity of the Human Being,” in *The Later Works*, XIII, 325.

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의 성격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이고, 건설적이며,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이었다. 듀이의 전체사상은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에 잘 요약되어 나타난다. “우리가 인간들이 협력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때,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를 제어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균형을 가져올 때 우리는 인간의 통합에 대한 더 나은 이상을 얻을 수 있다.”<sup>11)</sup>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사회전체의 권위와 도덕 그리고 지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존 듀이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듀이의 사상이 성숙되었던 시기는 미국 지성사에서 다윈주의가 풍미했던 시대로서 분열적인 지적·정신적 전환의 시기였다. 다윈주의의 영향하에 많은 작가들이 인식하였던 우주의 모순과 우연성은 불안과 무의미와 절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듀이는 그러한 지적 변혁이 오히려 민주정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과학적 방법은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며 권위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희망을 갖고 활동하고 앞을 내다보도록 고무시켰다. 그의 과학지향과 공공지향의 철학은 전체를 부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와 하모니 속에서 하나의 통합을 추구했다.

존 듀이는 1859년 미국 버몬트 주 벌링톤(Burlington)에서 태어났다. 1879년 버몬트 대학을 졸업한 후 듀이는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가르쳤고, 1882년에 존스 홉킨스대학에 들어가 1884년에 철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10년 동안 재직한 후 1894년부터 1904년까지 시카고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교육학의 수업을 담당하였고, 실험학교를 창설하기도 했다. 1904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봉직했고, 1952년에 작고했다.

존 듀이의 긴 생애 동안 그의 지성은 결코 한 순간도 멈추거나 정체하

11) Ibid., 326.

지 않았다. 오늘날 37권의 듀이 전집은 그가 언급한 바처럼, “개인 속에 존재하는 요소들은 영구히 억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sup>12)</sup> 만일 우리가 생을 하나의 단위로 언급한다면, 듀이의 생은 하나의 역동적 전체였다. 그의 생은 국가와 국민의 통합에 온 몸을 바쳤고, “과학적 지성”을 추구했으며, 창조적 지성으로 자기를 실현하고자 했다. 폴 K. 콘킨이 말했던 바처럼, “존 듀이는 미국철학의 흐름에서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그는 청교도 사상의 경건과 낭만적 초월주의 사상의 확신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것만큼 생의 통합과 전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sup>13)</sup>

### III. 공통경험의 추구

1897년 듀이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인, “나의 교육 신조”라는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교육 받게 될 개인은 사회적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유기적 연합이라 믿는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사회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추상으로 남게 될 뿐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로부터 개인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단지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대중으로 남게 될 것이다.”<sup>14)</sup>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듀이가 추구했던 것은 결코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대중”이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살아있는 국가였다. 그리하여 개인이 사회적 개인이 되었을 때

12) John Dewey, “Authority and Social Change,” in *Authority and the Individua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7), 188. George Dykhuizen, *The Life and Mind of John Dewe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3) 참조.

13) Paul K. Conkin, *Puritans and Pragmatists: Eight Eminent American Thinkers*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68), 345.

14) John Dewey, “My Pedagogic Creed,” in Jo Ann Boydston ed., *John Dewey, The Early Works, 1882-1898* (5 vol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V, 86.

그리고 사회가 “개인들의 유기적 연합”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생은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철학연구를 위한 그의 주요 목적은 철학을 사회 속에서 살아 있고 숨쉬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sup>15)</sup>

1929년에 듀이 스스로가 쓴 자신의 짧은 자서전인 “절대주의로부터 경험주의로”에서 그는, “대체로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동력은 책들로부터 보다는 개인들과 상황으로부터 왔다.”고 했다.<sup>16)</sup> 정말로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기 동안 사회적 관심과 여러 문제는 듀이에게 “지적 호소”였으며 “지적 자양물”이었다. 그의 철학연구의 태도는 모든 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sup>17)</sup> 거대한 사회현상에 대한 인간경험이 듀이철학의 기반이었다. 듀이 사상의 성격은 사회적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철학과 함께 그의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경험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가 생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고찰해야만 한다.

듀이에게 생은 “환경 속에서 행위를 통한 자기생명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의 과정”을 지속시키는 일이었다. 그에게 그 과정의 연속은 어떤 개인의 존재가 연장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새로운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에 의존한다. 듀이는, “생의 연속은 살아 있는 유기체의 욕구에 대한 환경의 지속적인 개작을 의미한다.”고 믿었다.<sup>18)</sup>

듀이에게 생은 “관습, 제도, 신념, 승리와 패배, 여가와 직업”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종적 경험의 전체범위”를 의미했다. 경험은 “생활경험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정신을 통하여 지속된다.<sup>19)</sup>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지속되는가? 듀이에

15) John Dewey, “The Metaphysical Assumptions of Materialism,” in *ibid.*, I, 3.

16) John Dewey, “From Absolutism to Experimentalism,” in *The Later Works*, V, 155.

17) John Dewey, “Philosophy,” in *ibid.*, V, 161.

18)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1916; reprint, New York: Free Press, 1944), 2.

19) *Ibid.*, 2.



따르면, “사회는 생물학적 삶만큼이나 전달의 과정을 통하여 존재한다. 이 과정은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습관을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어난다. 집단생활을 무시하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상, 희망, 기대, 기준, 견해 등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 없이는 사회적 생은 존재할 수 없다.”<sup>20)</sup>

정말로 듀이가 이해했던 바처럼 “사회는 전달과 의사소통에 의해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달과 의사소통 속에서 존재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의사소통은 사회의 연속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공통적인 것을 매개로 공동체 속에 사는데, 의사소통은 그들이 공통적인 것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 혹은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은 목적, 신념, 열망, 지식 등 공통적인 이해다.” 또한 “공통적인 이해 속에 참여를 확실시하는 의사소통은 유사한 감정적·지적 경향을 확보하는 것인데, 기대와 필요에 반응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sup>21)</sup>

듀이에게 개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공통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듀이에게 그것은 개인이 사회와 역사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공통경험에 참여할 때 나타났다. 『인간본성과 행위』의 서문에서 듀이는, “정신은 사회적 환경과 생물학적 적성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신념, 욕망, 그리고 목적의 체계로서 단지 실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sup>22)</sup> 또한 “모든 행위는 인간본성의 요소들과 자연적·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듀이는 말했다.<sup>23)</sup> 따라서 도덕은 인간본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데, 이 인간본성이란 자연의 나머지와 “일, 시민생활, 친교와 여가활동의 연속 속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사회적 습관 및 열망”과 이어져 있다.<sup>24)</sup> 그리하여 듀이는, “도덕과 인간본성 그리고 이 둘과

20) *Ibid.*, 3.

21) *Ibid.*, 4.

22) John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22), preface, 10.

23) *Ibid.*, 10.

환경과의 통합이 인식될 때까지 우리는 생활의 가장 예민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경험의 도움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 인간 그리고 사회의 연속성에 대한 지적인 인지는 열광적이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고, 감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열광적이고, 인습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적응하며, 수익을 타산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민감할 수 있고, 낭만적이지 않으면서도 이상적일 수 있는 도덕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sup>25)</sup>

그러나 자연, 인간, 사회의 연속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상반은 개인적 경험에서는 물론 집단적 경험에서 나타난다고 듀이는 관찰했다. “현대과학,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정치는 서구세계의 가장 훌륭한 지적·도덕적 유산과는 생소하고, 혼히는 양립하지 않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우리에게 제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이러한 현상을 모던세계의 지적 당혹과 혼동의 원인으로 보았다.<sup>26)</sup> 듀이에게 “경험적 자연주의의 방법”은 “인간이 자유롭게 현대과학의 입장과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듀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중한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해명하고 강화하기를 기대했다.<sup>27)</sup>

또한 듀이는 경험적 자연주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당혹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다.<sup>28)</sup> 듀이에게 “자연과 경험은 적이나 낯선 이방인이 아니다. 경험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베일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중심부 속으로 더 깊이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단이다.”<sup>29)</sup> 자연과 경험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경험은 자연의 비밀을 간파하여 자연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드러나는 반면, 자연이 경험적으로 드러날 때, 자연은 경험의 발전을 더 한층 깊게 하고, 풍부하게

24) *Ibid.*, 8.

25) *Ibid.*, 13.

26) Dewey, *Experience and Nature*, ix.

27) *Ibid.*, ix.

28) *Ibid.*, x.

29) *Ibid.*, x.

하며, 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듀이에게 경험은 “어떤 방식 속에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통합의 중요한 수단이었다.<sup>30)</sup> 다시 말해 경험적 방법은 유기체와 환경이 하나되어 매일 생활의 포괄적인 활동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비경험적 방법에 의해 객체와 주체 그리고 정신과 물질은 분리”되어 왔다고 그는 지적했다.<sup>31)</sup> 그에게 비경험적 방법은 “마음을 억압하고 상상을 마비시키는 원천”이었다.<sup>32)</sup>

듀이에게 철학연구관 “인류의 공통경험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추구된 철학은 생활경험에 대한 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매일 생활의 잠재력이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구체적 인간경험과 그 잠재력이 추구되었을 때, “철학의 훨씬 광범한 자유주의적 인간가치”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문화의 지적 촉진”은 성취될 것이라고 듀이는 생각했다.<sup>33)</sup>

정말로 듀이에게 경험은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생활에서 역동적 힘이 었다. 사회와 국가의 존재는 개인들의 공통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듀이에게 공통경험은 미국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에게 공유된 경험 혹은 공통경험은 사회 혹은 국가의 의미를 위해서는 물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확실히 그 공통경험은 그것이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전통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통경험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 사회와 개인, 자연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킬 때, 역동적이며,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런 의미에서 듀이에게 전체와 부분들의 살아 있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와 임무가 되었다.

30) *Ibid.*, 4a-1.

31) *Ibid.*, 9-10.

32) *Ibid.*, 11.

33) *Ibid.*, 11, 12.

1934년에 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전체와 부분들 혹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듀이는 내적으로 통합된 경험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경험은 “하나의 전체이며 그 자체의 개인화에서 일어나는 자질과 자기 충족이다.”<sup>34)</sup> “하나의 지속적인 전체”로서 경험은 그 자체의 “미적인 자질”을 소유하는데, 이 자질은 내적인 통합과 수행이 질서정연하고 조직된 운동을 통하여 도달된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경험도 그것이 미적 자질을 가지지 않는 한 통합이 아니다.<sup>35)</sup> 미적인 것의 적은 “실제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아닌”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듀이는 강조했다. 그는 “흐트러진 목적의 느슨함과 실제적·지적 절차에서 관행에 빠지는 것”을 싫어했다. 또한 그는 “엄격한 절제, 강요된 순종, 그리고 경직성”을 싫어했으며, “방탕, 지리멸렬, 그리고 목적이 없는 방종”도 싫어했다. 듀이에게 이러한 것들은 “경험의 통합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일탈들”이었기 때문이다. 듀이가 추구했던 경험은 “그 자체의 완성을 향해 발전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이었다.<sup>36)</sup> 이 발전적 경험에서 “실제적, 감정적, 그리고 지적인” 부분들은 하나의 통합적인 경험을 구성하고 그럴 때만이 그 경험은 미적 자질을 가진다.<sup>37)</sup> 정말로 하나의 경험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되고 그리고 미적일 때, 그것은 살아있고, 활기차고, 창조적이며, 무엇을 향하여 움직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듀이는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보유하고자 했다. 그의 철학은 안정과 변화를 모두 강조하면서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었다.

그리하여 듀이는 전망과 회고의 가치 둘 다를 전체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착된 종결된 세계가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세계에 살면서도 연대와 안정성, 그리고 본시 우리가 갖고 있던 저력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sup>38)</sup> 그에게, “분할된 세계, 즉 부분들

34)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14-15.

35) John Dewey, *Art as Experience*(1934) in *The Later Works*, X, 42.

36) *Ibid.*, 47.

37) *Ibid.*, 49.

38) *Ibid.*, 63.

과 다른 여러 면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은 세계는 곧 분할된 개성의 징조이자 원인이었다.”<sup>39)</sup> 완전히 통합된 개성을 위해 연속적인 경험들은 서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해 듀이는 공통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를 추구하였다. 정말로 경험의 복잡한 의미에 대한 듀이의 인식은 자아와 세계 그리고 전체와 부분들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 IV. 미국정신의 새로운 종합추구

“사회” 사상가로서 미국 지식인들은 우주, 인간본성, 미학, 사회 그리고 정치를 바라 볼 때 그러한 요소들을 이미 주어진 어떤 개념들로 결코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유로운 창조적 사상과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언제나 현재 속에 살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자 했다. 듀이의 창조적 지적활동도 이러한 지적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

듀이의 모든 철학이론은 많은 열정을 갖고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고 활동하였던 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긴 생애 동안 그는 “인간본성과 행위” 그리고 “경험과 자연”의 포괄적인 관점을 통해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인간사회의 그러한 문제들에 철학적 해결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루이스 면포드처럼, 듀이는 “전통들(제도, 관습, 모든 종류의 신념)의 재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이들을 현재의 과학 및 기술의 잠재력과 조화시키려” 했다.<sup>40)</sup> 그에게 철학의 당면 과제는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통합과 협력을 회복시키는 문제”였다.<sup>41)</sup>

39) John Dewey, *Experience & Education* (1973; 6th pr. New York: Collier Books, 1938), 21.

40) Lewis Mumford, “Drama of the Machines,” in Lewis Mumford, *Interpretations and Forecasts: 1922-1972* (New York, 1973), 239-240.

41) John Dewey, “Experience, Knowledge and Value: A Rejoinder,”(1939) in Paul Arthur

듀이의 “공통경험”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던 바처럼, 통합과 협력에 대한 그의 정신은 “변화된 사회 상황,” 즉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나왔다.<sup>42)</sup> 당시 미국사회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산업의 변화”였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규모의 값싼 동력을 자연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동력을 기반으로 시장은 전국적인 규모가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엄청난 생산품의 공급은 거대한 제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모든 의사소통”은 편리해졌고 “분배”의 수단은 값싸고 새롭게 바뀌었다.<sup>43)</sup> 듀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인의 “생활 습관은 놀랄 정도로 급격하고 철저하게 변화되었으며, 자연의 진실에 대한 추구는 무한하게 고무되고 촉진되었으며, 생활에 이러한 진실의 적용은 실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또한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미국민들은 “도덕적·종교적 이상과 관심까지도 그리고 그들 본성 속에 가장 깊이 놓여 있는 가장 보수적인 부분까지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sup>44)</sup>

그러나 듀이는 미국전통의 도덕적,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 요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론과 실재를 구분하는 전통철학을 공격했을 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 것이었다. 비록 형이상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전통철학에 대한 듀이의 도전이 포스트모던 철학과 같은 노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통 그 자체를 해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전통철학에 대한 듀이의 도전은 그것의 “수정,” “변화,” 그리고 “개정”에 국한하는 것이었다.<sup>45)</sup> 철학연구에

---

Schilpp and Lewis Edwin Hahn, eds., *The Philosophy of John Dewey*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1989), 523.

42) John Dewey, *The Quest for Certainty: A Study of the Relation of Knowledge and Action* (New York: Balch & Company, 1929), 255.

43) John Dewey, *The School and Society and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1956; repri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5), 8.

44) *Ibid.*, 9.

45) John Dewey, *Individualism, Old and New in The Later Works*, V, 48.

있어서 듀이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상과 실체가 기능으로서 함께 작용하는 “철학의 역동적 원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가 공격했던 것은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인 노력을 통한 “확실성의 추구”였지,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니었다. 듀이는 “미국영혼의 외형과 피상적인 속성”이 아니라<sup>46)</sup> “분할된 미국문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인 내적 통합과 개성의 독특성”을 추구했다.<sup>47)</sup>

우리는 이미 듀이가 “미적인 경험”이라 지칭했던 바를 통해 그리고 경험의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궁극적·내적 통합과 개성의 독특성”을 보았다. 듀이는 사회의 통합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독특한 개인들의 통합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듀이는 “한때 개인들을 결속시키고, 통합시켰던” 요인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잘 인식했다. 듀이는 현재만큼 신념과 행위에 있어 분명한 목적을 상실한 시기도 역사상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보았다.<sup>48)</sup>

개성의 상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물론 종교 분야에서 두드러졌고, “상실된 개인”은 분명히 상실된 사회를 의미했다. 개인의 독특성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되는 전체성의 의미는 “통합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회 구성원을 통해서만이” 도달될 수 있었다.<sup>49)</sup> 개성의 와해는 현실에 부딪쳐 자아를 재건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듀이는 “와해된 개인은 사회생활의 지배적 에너지가 그들 개성을 회복시킬 때만이 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50)</sup> 정말로 철학자로서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기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sup>51)</sup>

46) Dewey, *The Quest for Certainty*, 6.

47) Dewey, *Individualism, Old and New*, 52.

48) *Ibid.*, 56, 66.

49) *Ibid.*, 68.

50) *Ibid.*, 72.

개인주의의 개념이 흔히 “사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이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듀이는 “개성의 안정적 회복은 과거의 경제적·정치적 개인주의가 제거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sup>52)</sup> 미국의 도덕적 문화에 개인주의의 이상과 가치가 충분히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개인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듀이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듀이에게 회복은 언제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새로운 종합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단절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통합과 연속을 암시했다. 그리하여 듀이의 종합은 자연, 인간 그리고 사회의 유기적 연속성을 의미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듀이는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새로운 종합의 기반—새로운 가치들을 위한 기반—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듀이는 미국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던 초기 개인주의의 지속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창조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개인주의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는 개인주의 대신에 사회주의를 대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개인들의 정신적·도덕적 구조, 그들의 욕구와 목적이 거대한 사회변화와 함께 바뀌었다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의 개인주의를 새로운 개인주의로 수정하려 하였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기술시대의 물질적·기계적 힘들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듀이는 민주적 미국인들은 산업발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을 통한 미국정신의 새로운 종합을 추구했다. 정신과 육체, 물질과 정신, 그리고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통합을 시도했던 듀이에게 문화와 과학은 충분히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실체들이었다. 미국정신의 새로운 종합을 추구함에 있어서 듀이에게 과학은 새로운 “잠재적 도구”였다.<sup>53)</sup>

51) *Ibid.*, 73.

52) *Ibid.*, 74.



자신의 시대의 혼돈은 산업화된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듀이는 “문화에서 위기의 해결은 침착하고,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개성의 회복과 일치한다.”고 제안했다. “기계와 물질문명 속에 내재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는 개인들 속에 있는 잠재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속성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방된 개인들은 계속하여 새로운 사회의 부단한 형성자들이 될 것”이라고 듀이는 주장했다.<sup>54)</sup> 듀이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는 경험적 자연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인데, 그의 해결은 극단적이 아니라 온건하고, 비판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며, 독단적이 아니라 민주적이며, 해체적이 아니라 건설적이며, 반동적이지 아니라 진보적이었다. 그의 사상은 미국 지적 전통의 한 부분이며 미국정신의 표현이었다.

## V. 공통 신념을 통한 미국민의 통합추구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공통신념” 위에 수립되고 유지되는가? 그 정신적 동력은 무엇인가? 모든 국가는 그 자체의 역동적인 정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요소들이 없다면 그 존재는 결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정신적 동력은 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발전의 과정 속에 누적되며 또한 변화한다. 따라서 현재란 필연적으로 깊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수립은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과정이기조차 하다. 한 국가의 정신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그 국가의 전체역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마치 듀이가 말하는 미적 경험에서 나오는 전체의 개념과 같은 것인데, 이 전체 속에 부분들은 전체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유기적 통합을 형성하고 이끈다. 이렇듯 엄청

53) Dewey, *Individualism, Old and New*, 100.

54) *Ibid.*, 101.

나게 복잡한 정신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지하고 주의 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존 듀이가 비록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철학을 공격했다 할지라도 미국 경험의 의미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 자신의 깊은 형이상학적 관조로부터 나왔다. 그의 관조의 출발점은 “우리”는 누구인가였다. 그에게 “우리”는 통합된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정당화된 인간들이었다. 듀이는 인간존재의 의미관 습관과 자아와의 관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모든 습관은 영향력이자 추진력이며”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믿었다.<sup>55)</sup>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고정되고 타율적인 어떤 것인가? 혹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자아는 습관 속으로 사라지는가? 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우리의 자아와 이상은 형태와 일관성을 얻으며 능동적이고 역동적이 된다고 본다. 습관은 “능동적 수단이며 스스로를 투영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행위의 역동적 지배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sup>56)</sup> 그는 “서로와 관련된 연속적 습관에서 나오는 역동적 힘은 성격과 행위, 더욱 구체적으로 동기와 행위 그리고 의지와 행위의 통합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sup>57)</sup> 더욱이 그는 습관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형태 속에 입각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서로와 연관된 유기적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는 교육에 의해, 끈질긴 가르침에 의해, 그리고 분명한 협력적 현상들에 관해 배움으로써 공동체를 특징짓는 전통, 사고방식, 이해관계 속으로 인도되어야만 한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워지는 것이다.”<sup>58)</sup> 즉, 인간은 좋은 싫든 습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존재의

55) David A. Hollinger, “Perry Miller and Philosophical History,” *History and Theory*, 7(1968), 189.

56)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25.

57) *Ibid.*, 25.

58) *Ibid.*, 43.

유기적 구조는 습관의 형성을 수반하였고, 습관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수립된 행위의 방식에 묶어 두었다. 듀이가 언급한 바처럼 “습관은 사상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작용하는 통로를 결정한다.”<sup>59)</sup>

듀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형이상학적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다시 말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투쟁을 통해 형이상학적 존재로 성장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게 존재의 의미는 과거 선조가 살았고, 앞으로 후손이 살게 될 문화와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듀이는 종교를 “엄격하게 집단적 용어”로 보면서 “경험이 작동하는 방법, 그 기능이 종교적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었다.<sup>60)</sup> 그는 “생활의 과정 속에서 작용함으로써 힘을 가지는 종교적 경험과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런 종류의 종교적 경험”을 구별했다.<sup>61)</sup> 듀이는 단지 전자의 경험만이 공통경험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흔히 생활의 많은 중요한 순간들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듀이는 전통과 관습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하나 되는 습관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대신 상황이 우리의 욕구와 목적에 부응될 수 있도록 상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따라서 전체적 자아는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진보의 방향과 속도는 듀이가 “적응”이라고 지칭한 것의 성격에 달려 있었다. 결국 듀이가 말했던 바처럼, 관찰, 사상, 혹은 실제적 활동은 전체적 자아의 완전한 통일에 도달할 수 없었다.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기준하는 실체가 아닌 자아는 “하나의 이상이고, 하나의 상상적인 투영”이었다. “그러므로 자아와 우주와의 철저하고 심층적 조화를 이루는 이상은 단지 상상을 통해서만 작용한다.”<sup>63)</sup>

59) *Ibid.*, 154.

60) *Ibid.*, 160.

61) John Dewey, *A Common Fa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4), 14.

62) *Ibid.*, 14.

63) *Ibid.*, 16.

그러므로 “상상을 통해 성취되는 통일은 공상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감정적 태도들의 통일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통합은 하나의 유일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적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이상적이고 상상적인 자질의 힘 속에서 하나라는 사실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충성과 노력의 통합을 의미한다.”<sup>64)</sup>

확실히 듀이의 자연주의는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 보다는 개인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연관과 결합의 의미에서 협력은 모든 존재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sup>65)</sup> 그는 “독자적인 것들이 활동하지만 그들은 함께 활동하며” 그리고 “모든 것의 행위는 다른 것들의 행위와 함께 한다.”<sup>66)</sup> 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개인들은 협력 속에서 존재하고 작용한다고 굳게 믿었다.

초월적이고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듀이는 하나의 국가가 바로 그 본질에 의해 “음미되고 조사되며 탐구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sup>67)</sup> 즉 국가를 발견하는 문제는 서로와의 협력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일반적으로 인류의 실제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은 집단들 속에서 결합된 개인들의 행위와 결과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들의 원천과 기원을 추적하는 힘을 요구한다고 듀이는 보았다.<sup>68)</sup>

만일 한 국가가 불가능한 영원하고 추상적인 이상 위에 단순히 수립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고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국가는 인간의 욕구와 목적의 혼합 위에 수립되었고, 그 형태가 안정되자마자 그것은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진정한 의미가 그 형성과 재형성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 듀이가 말하는 소위 경험적 연속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64) *Ibid.*, 19.

65) *Ibid.*, 43.

66) Dewey, *The Public and its Problems*, 22.

67) *Ibid.*, 23-24.

68) *Ibid.*, 31.

국가를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초월적이어야만 한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전체를 인식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먼 과거로 확대되는 인간성 그리고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인간성의 부분들”이다.<sup>69)</sup>

요약하면, 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이해로부터 듀이는 그 이중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란 과거로부터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백지상태의 창조란 낙관적인 혁명가들의 희망과 겁에 질린 보수주의자들의 소심함, 둘 다를 무시하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sup>70)</sup> 그러므로 듀이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가치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개정하고, 그리고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후대가 훨씬 확고하고 안전하며 더욱 널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관대하게 분할된 가치의 유산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71)</sup>

한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이 언제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듀이는 변화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때 한때 수립된 지위, 혈통, 가족에 상관없이 국가의 본질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국가가 누적된 지식, 즉 기술과 기능의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변화의 과정은 훨씬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실히 듀이에게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신념은 보존과 변화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국가의 본질적 연속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역사의 연속성을 무시하며 인간연대를 추구하고자 한다. 리처드 로티는 “연대란 반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2)</sup> 사실 로티는 듀이를

69) *Ibid.*, 32.

70) Dewey, *A Common Faith*, 87.

71) Dewey, *The Public and its Problems*, 161-162.

72) Richard Rorty,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xvi.

“역사주의자”로 보면서 자신의 입장과 같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존재가 담고 있는 깊은 역사성에 기반을 둔 역사의 본질적 연속성에 대한 듀이의 인식을 무시하였다. 로티의 역사주의는 역사와 사회로부터 정신을 제거하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고, 자아로부터 영혼을 부인하는 반면 듀이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 VI. 미국의 창조적·협력적 자기실현 추구

듀이에게 미국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미국의 기원이 유럽적이었다 할 지라도 그 역사는 독특한 미국적 경험을 통해 발전하였다. 미국사상은 유럽사상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토양 속에서 세련되었을 때 미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성격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듀이에게 “민주주의와 미국은 분리할 수 없는 상호 관련된 개념들이었다. 즉 민주주의 없이는 미국의 의미도 상실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없이 민주주의의 성취는 미국민들을 위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미국의 상호작용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듀이 철학의 지배적인 주제가 로버트 J. 루이 지적한 바처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된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면,<sup>73)</sup> 듀이에게 미국사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했던 미국민의 자기실현의 과정이었다.

민주주의에 관한 듀이의 입장은 그의 경험철학으로부터 왔다. 그의 경험철학이 생활에 대한, 즉 환경 속에서의 행위를 통한 자기개신의 과정에 대한 그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출발점은 인간경험이었다. “생활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매일

73) Robert J. Roth, *John Dewey and Self-re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2), v.

벌어지는 개인들의 상호협력에 의해 발전한다고 듀이는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듀이는 “경험의 과정은 도달된 어떤 특별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성취된 특별한 결과는 그것이 계속되는 경험의 과정을 풍부하게 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한에서만이 궁극적 가치를 지닌다.”<sup>74)</sup>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그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완성되어, 정체되고, 제도화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정신이며 믿음이었다. 그것은 창조적 정신이었다.

경험이 개인, 사회, 국가를 의미 있고, 살아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만들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창조적 민주주의는 주변환경, 특히 사물들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욕구와 욕망을 발전시키고 만족시키는 인간환경과 개개인들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라고 듀이는 믿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임무는 영원히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기여하는 더욱 자유롭고 더욱 인간적인 경험의 창조였다.”<sup>75)</sup>

중요하게도, 듀이는 “습득이 아니라 창조가 한 국가의 등급을 측정하는 기준”이라 믿었다.<sup>76)</sup> 왜냐하면 습득은 언제나 이기적인 반면, 창조적 “예술은 더 변창하면 할수록 부, 태생, 인종, 그리고 신조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속하고,” “덜 사적으로 소유되며, 모두에 의해 향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7)</sup>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듀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보았다. 그는 이 “현재의 깊은 위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마치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영속되는 것처럼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78)</sup>

74) John Dewey, “Creative Democracy—The Task Before Us,” in *The Later Works*, XIV, 228.

75) *Ibid.*, 229.

76) *Ibid.*, 230.

77) John Dewey, “Art as Our Heritage,” in *The Later Works*, XIV, 255-256.

78) *Ibid.*, 256.

미국의 자기실현은 미국 민주주의가 창조적 민주주의가 될 때만이 그리고 모든 미국민들이 국민적 경험에 동참할 때만이 성취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자기실현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협력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듀이가 언급했던 바처럼, “창조는 계속하여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미래에 현재의 동력과 업적들을 전달하는 것은 현재에 과거를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계승자는 물론 미래의 창조자”로서,<sup>79)</sup> 미국민은 창조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만 한다. 듀이에게 그것은 “모든 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이었다. 듀이가 주장하는 바처럼, “그것은 정채하여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생활의 새로운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진하지 않는다면 퇴보하여 결국에는 사멸하고 마는 것이다.”<sup>80)</sup>

확실히 듀이의 철학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위한 구상이었다. 그의 철학은 주로 일상 생활의 세계와 과학적·경험적 방법을 통한 모든 사람의 공통경험을 다룸으로써 모든 미국민들을 위한 사회철학 혹은 도덕철학이 되려는 경향이 있었다. 듀이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유는 무엇이고 왜 찬양되는가? 자유를 위한 욕구는 인간본성 속에 내재하는 것인가 혹은 그것은 특별한 상황의 산물인가? ... 자유의 결실은 다른 사람과의 통합과 연대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향유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듀이는 이러한 질문들에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답할 수 없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전통이라는 것이 본시 인간본성과 “도덕적 목적에 대한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연루는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81)</sup> 이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했다.

듀이의 대안은 “문화의 자유”였다. 그것은 정치제도를 뛰어 넘는 것이

79) Dewey, “Creative Democracy—The Task Before Us,” 225.

80) John Dewey, “Education: 1800-1939,” in *The Later Works*, XIV, 271.

81) John Dewey, *Freedom and Culture* (New York: G.P. Putnam's Sons, 1939), 3-4.



었다. 듀이는 그것이 개인, 산업, 과학, 예술 그리고 종교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sup>82)</sup> 듀이에 따르면 “각 문화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특징적으로 배열하는 그 자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론 그 존재의 단순한 힘에 의해 문화는 미숙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본래적이고 원초적인 인간본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스스로 살아남는다.”<sup>83)</sup> 그래서 듀이에 게 현재의 미국은 단순히 정치체도가 발전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이 협력하여 함께 살았던 미국문명의 산물이자 표현이었다. 그것은 또한 문명의 창조적·협력적 자기실현의 결과였다.

듀이는 미국의 민주적 전통의 원천은 도덕인데,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강압 대신 유대 위에 건설된 사회적 안정을 수반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본성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믿었다.<sup>84)</sup>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의 창조적·협력적 자기실현은 도덕적 기반 위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듀이는 믿었다.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도덕성이 사회적 조건과 인간본성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을 의미했다.

과학과 종교간의 갈등 그리고 신구 도덕적 질서간의 갈등이 일고 있던 시대에 살았던 듀이는, 갈등의 해결은 “인간의 가능성과 이상이 한편으로는 과학이 제시하는 정신 및 방법과 통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제도의 작용과 통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믿었다.<sup>85)</sup> 그 갈등과 해결의 힘 모두가 미국의 제도와 태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는, 미국의 창조적·협력적 자기실현은 “민주적 방법들의 적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sup>86)</sup> 어떠한 권위적인 방법에도 반대하면서 그는 “민주적 목적은 그 실현을 위해 민주적 방법을 요구한다.”

82) *Ibid.*, 5.

83) *Ibid.*, 6.

84) *Ibid.*, 19-20.

85) *Ibid.*, 162.

86) *Ibid.*, 168.

고 강조했다.<sup>87)</sup> 듀이의 후기 저술 중 많은 부분은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미래를 다루었는데, 이는 당시의 전체주의 경향에 반대하여 나온 것이었다.

## VII. 맺는 말

최근 미국학계에서 리처드 로티와 같은 전문 철학자들의 노력 덕택으로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다시 일고 있다. 프래그머티즘이 미국 지성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논지는 대단히 편협하고 일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다룬 듀이의 깊고 복잡한 사상도 그들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을 때 단지 그의 반항적이고 급진적인 면만이 부각되면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의도와 목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처럼 듀이의 철학은 전통을 단절시킬 수 있는 홍수와도 같은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잔잔한 저수지와도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철학은 상류와 하류를 자연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흐름의 한 부분이었다. 그의 민주사상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통철학을 반대했던 듀이의 입장이 최근 포스트모던 사상과 유사한 반면, 듀이는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추구했던 절대적 반본질주의에 관한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88)</sup>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반전통적 입장들은 당시의 세계상황 속에서 나타난 변화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그 변화들의 도전에 대처하려

87) *Ibid.*, 175.

88) Dewey, *Experience and Nature*, 37.

는 그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해 그의 사상은 미국역사와 미국사회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산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저 전환의 시대에 듀이는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미국과 미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다. 분명히 듀이 사상은 저 복잡한 모던 세계의 도전, 즉 지적·사회적 권위의 위기에 대한 반응에서 형성되었다.

역사와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적 미국 지식인들은 일치하여 인간의 합리성을 본질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던 반면, 최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합리성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준 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역사적·사회적 실체들을 해체하고자 한다. 비록 존 듀이가 전통 철학에 도전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 미국전통을 조소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 국민의 실질적 행위와 신념을 포함하는 합리성의 광범하고 깊은 개념을 추구했다.

듀이의 철학은 통합의 철학이다. 그에게 통합이란 인간개성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 창조적 자기실현이 자연, 사회, 국가, 역사, 전통 그리고 권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통합이 성취될 때 미국은 살아 있고, 움직이며, 성장하는 실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경험의 독특성을 인식하면서 그는 미국을 하나의 개인과 같은 어떤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미국의 창조적·협력적 자기실현을 믿었다.

미국 지성사에서 듀이의 사상은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철학적 범주를 넘어 20세기 전반의 지적 기류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의 이상은 20세기 미국 자유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찰스 폴시가 지적한 “자유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은<sup>89)</sup> 이미 듀이의 사상 속에서 짚고 있었다.

89) Charles Forcey, *The Crossroads of Liberalism: Croly, Weyl, Lippmann, and the Progressive Era, 1900-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vii.